

37과 부자와 나사로 (천국과 지옥)





어느 마을에 한 부자가 살았습니다.

부자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매일 잔치를 벌이며 즐겁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죽어서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부자는 지옥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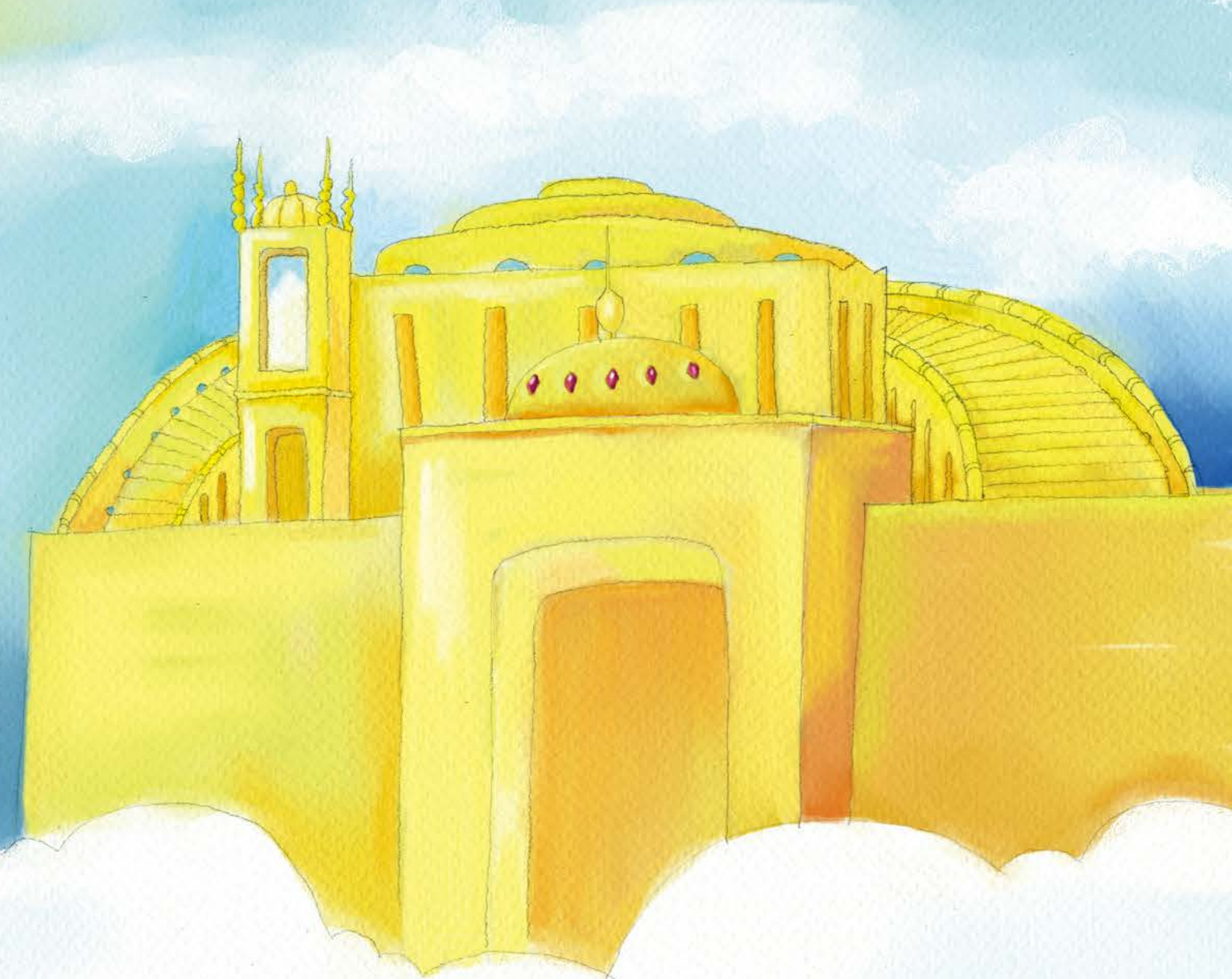
“아! 으으흑.... 뜨거워.

나에게 물 한 방울만이라도, 으....”

“너는 살아 있는 동안 좋은 것을 다 받아 거기서 고통을 받느니라. 거기서 결단코 나올 수 없으리라.”

부자는 살아 있는 자기 동생들이 고통스러운 이곳에 오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지옥에 가지 않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뿐입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부자가 살던 마을에 거지 나사로가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나사로는 죽은 후에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은 항상 기쁘고 즐거운 곳입니다.
천국은 가장 아름답고 좋은 곳이에요.
그리고 가장 평화로운 곳입니다.
천국은 아픔과 슬픔이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곳이지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오기를
원하세요.

‘꼭’ 말씀 잘 듣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함께 가요.



교제해요

1. 부자는 무엇 때문에 지옥에 갔나요? ()



① 돈이 많아서



② 잔치를 많이 해서



③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서

2. 천국에는 어떤 사람이 갈 수 있나요? ()



①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



② 구원을 받은 사람



③ 돈이 아주 많은 사람

“하나님의 이 있으매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요한계시록 21:11)

암송

암송을 따라 써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시니
(요한계시록 2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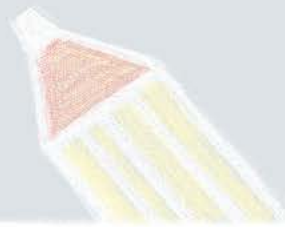
기도하는 어린이



하나님!

구원받아서 꼭 천국에 갈 수 있게 해 주세요.

나의
기도



불꽃 색칠하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지옥에 갑니다.
뜨거운 불길이 타오르는 지옥을 색칠해 보세요.



지옥의 불꽃을 색칠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적어 보기

선물 보따리 안에 내가 좋아하는 것을 모두 적어 보세요.



천국은 이 모든 것보다
더 좋은 곳이에요!

선생님께

부모님께